

KLPGA KB 스타투어 9일 함평다이내스티서 개막



오는 9일 함평다이내스티CC에서 한국여자프로골프 '2008 KB국민은행 스타투어(Star Tour)대회'의 개막을 알리는 1차대회가 시작돼 3일동안 명승부를 펼치게 된다. (광주일보 자료 사진)

'명품 그린'서 환상의 샷 대결

안선주·김하늘 등 국내 정상급 120여명 참가
신지에 日투어로 불참...우승 다툼 치열할 듯

한국여자프로골프 '2008 KB국민은행 스타투어(Star Tour)대회'의 개막을 알리는 1차대회가 9일부터 11일까지 4개월 양산지 골프장 함평다이내스티CC에서 열린다.

2006년 9월 국민은행 스타투어 3차대회와 지난해 5월 2차대회를 완벽하게 치러낸 양산지 코스를 갖춘 함평다이내스티CC(파 72·6천297야드)는 이번 대회를 앞두고 그린과 페어웨이 정비에 모두 마치고 대회 개막을 기다리고 있다.

8일 프로암대회를 시작으로 9~11일까지 3라운드 54홀 스트로크 플레이로 펼쳐질 스타투어 개막대회는 국

내 여자골프 정상급 선수 120명(프로 117명, 아마추어 3명)이 참가해 기량을 겨루게 된다.

참가선수들은 7일 정오부터 함평다이내스티 마제스티와 임페리얼 코스에서 연습라운딩을 통해 코스에 대한 적응력을 높인다.

8일 열리는 프로암대회에서는 참가선수들이 아마추어 골퍼들에게 레슨 등을 하며 긴장을 풀고, 9일부터 열릴 대회를 앞두고 마지막 샷 점검을 하게 된다.

이번 대회에는 스타투어 개막전 단골 우승자인 안선주(21·하이마트), 지난해 신인왕으로 지난 2일 휘닉스파크클래식에서 우승한 김하늘(20·코오롱) 등이 출전

해 불꽃 튀는 명승부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2007 국민은행 스타투어 1차대회와 2006년 국민은행 스타투어 1차대회에서 우승한 안선주는 스타투어 대회 개막전 단골 우승자로 우승권에 가장 근접해 있는 선수다.

김하늘은 지난 2일 강원도 평창 휘닉스파크골프장(파 72·6264야드)에서 열린 휘닉스파크클래식에서 최종합계 12언더파 204타를 기록, '지존' 신지에(20·하이마트)를 4타 차로 여유있게 제치고 우승했다.

신지에는 8일부터 도쿄 요미우리골프장(파72·6천523야드)에서 열리는 일본여자프로골프투어 샬롱파스컵 월드레이디스챔피언십에 출전하기 위해 이번 대회에는 불참한다.

안선주와 같은 팀 소속인 2007년 스타투어 5차대회 우승자 조영란도 다크호스로 꼽히며 홍란(22·이수건설) 등도 우승을 노리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KB스타투어 어떤 대회?

'KB국민은행 스타투어 대회'는 KB국민은행이 한국여자프로골프의 활성화를 위해 스폰서로 나서 2006년 처음 신설됐다.

2006년 4차 대회로 치렀고, 지난해에는 5차 대회, 올해는 다시 4차 대회로 열린다.

올 개막전인 1차 대회는 4개월 양산지 골프장 함평다이내스티CC에서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개최되고, 2차 대회는 6월 20~22일까지 부산소재 해운대C, 3차 대회는 9월 5~7일까지 충청지역 실크리버CC, 4차 대회는 10월 30~11월2일까지(장소 미정) 열릴 예정이다.



대회차수	일자	장소
1차대회	2008. 5. 9~11일	함평다이내스티 CC
2차대회	2008. 6. 20~22일	해운대 CC
3차대회	2008. 9. 5~7일	실크리버 CC
4차대회	2008. 10. 30~11. 2일	미정

KB국민은행 스타투어 대회 1~4차 대회 까지 총상금은 각 2억 원이다.

올 시즌 네차례 열려...대회마다 상금 2억원

지난해 KB국민은행 스타투어 대회 중 1차는 안선주(21·하이마트), 2차 지은희(22·켈러웨이), 3차·4차 신지에(20·하이마트), 5차 조영란(21·하이마트)선수가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한편 오는 9~11일까지 함평다이내스티CC에서 열리는 국민은행 스타투어 개막전 1차전을 관전하기 위해서는 국민은행이나 골프장 현장에서 입장권(1만원)을 구입하면 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함평다이내스티CC는?

함평다이내스티CC는 이번 KB국민은행 스타투어 개막전을 앞두고 지난달 22일부터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페어웨이와 그린 상태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 선수들이 최상의 코스에서 플레이를 펼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다.

함평다이내스티CC는 2006년 9월 KB국민은행 스타투어 3차대회와 지난해 5월 KB국민은행 스타투어 2차 대회 당시 페어웨이와 그린 상태를 완벽하게 조성해 선

수들로부터 찬사를 받은 경험을 살려 이번 대회에도 그린과 페어웨이를 최적인 상태로 조성했다.

특히 그린스피드를 지난해 10~10.5피트에서 10피트 정도로 약간 빠르게 조정했고, 페어웨이의 잔디는 20mm를 유지하도록 손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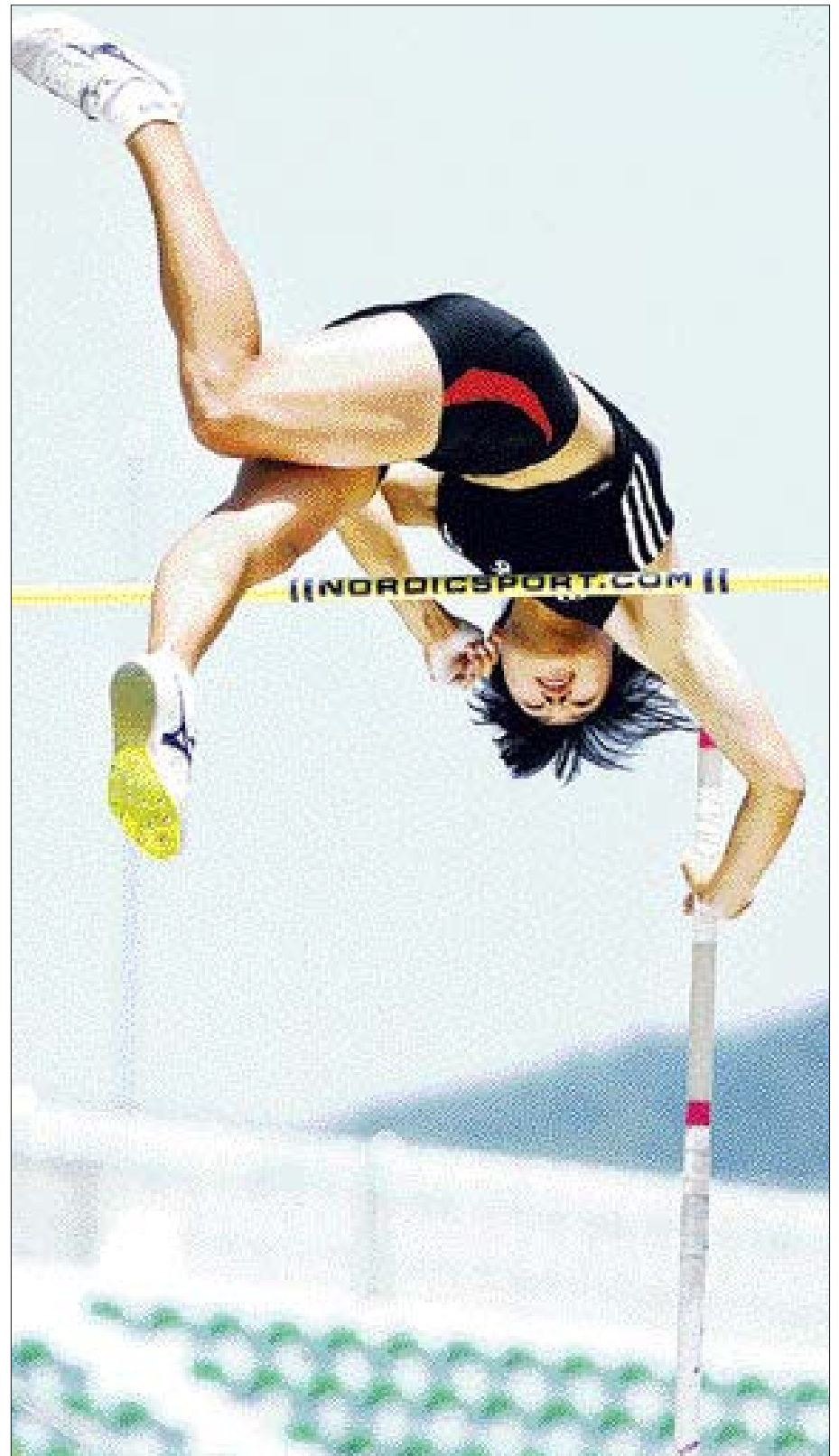
잔디에 20mm는 공이 잔디 안에 파묻히지 않고 잔디 위에 떠 있게 돼 샷을 하는데 최적인 상태를 유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높이이다.

또한 잔디 밀도도 최상의 상태를 유지해 공이 잔디 안에 밀려 들어가지나 파묻히지 않도록 했다.

한편 함평다이내스티CC는 이번 대회를 위해 지난달 22일 하루 내장객을 받지 않고 휴장 하면서 잔디와 그린 외에도 주변 환경관리를 통해 선수들이 플레이 하는데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그린 스피드 10~10.5피트...주변 환경도 '최적'



6일 경북 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37회 전국종별육상선수권대회' 장대높이뛰기 여자 대학부의 최윤희(원광대)가 4m11을 뛰어 넘으며 자신이 세운 종전 한국신기록(4m10)을 경신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윤희 한국新 넘다

女 장대높이뛰기 4m11 기록...1cm 경신

전국종별 육상경기 선수권

'미녀새' 최윤희(22·원광대)가 제37회 전국종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여자 장대높이뛰기에서 한국신기록을 세웠다.

최윤희는 6일 경북 김천시 종합운동장에서 계속된 대회 이틀째 장대높이뛰기 결승에서 두 번째 도전 만에 4m11을 넘어 2년 전 같은 장소에서 열린 전국체전에서 자신이 세운 종전 기록(4m10)을 1년 7개월 여만에

1cm 경신했다.

3m80, 4m를 몸풀기로 가볍게 넘은 최윤희는 곧바로 4m11에 도전했고 두 번째 시점에서 높게 솟구친 뒤 긴 체공시간을 이용해 바를 여유 있게 넘고 한국 기록을 새로 썼다.

최윤희는 주저하지 않고 베이징올림픽 출전권이 걸린 올림픽 B 기준기록(4m30)에 도전했으나 세 차례 시기에서 모두 실패, 다음달 대구에서 열리는 제62회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를 기약했다.

'호랑이' 없는 그린 '탱크 세상'?

PGA 플레이어스챔피언십 내일 개막

우즈 불참...최경주 강력한 우승 후보

8일(이하 한국시간) 플로리다주 폰테베드라비치 소그래스TPC 스타디움코스(파72·7천220야드)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플레이어스챔피언십은 특별한 대회이다.

우승상금 170만 달러를 포함해 총상금 900만 달러가 걸려 PGA 투어대회 가운데 가장 많다.

4개 메이저대회에 경위 상금, 출전선수 수준, 코스, 우승컵에 대한 선수들의 열망 등 뒤지는 것이 전혀 없어 '다섯번째 메이저대회'로 불린다.

'탱크' 최경주(38·나이키골프)와 '사자' 앤서니 김(23·나이키골프)이 강력한 우승후보로 꼽히고 있어서다.

미국 언론은 세계랭킹 2위 필 미켈슨(미국)의 2연패 달성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

다. 1974년 대회 창설 이후 내로라하는 강호들이 우승컵을 품에 안았지만 타이틀 방어에 성공한 적이 한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무릎수술을 받고 재활 중인 타이거 우즈(미국)가 출전하지 않아 미켈슨이 사상 첫 2년 연속우승을 달성할지 모른다는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즈없는 대회에서 우승후보는 사실상 출전선수 144명 전원이나 다름없다.

세계랭킹 8위에 올라 있는 최경주도 우승 가능성이 높다. 스타디움코스가 정확한 샷을 구사하는 선수에게 유리하다는 사실은 그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최경주는 샷의 정확도를 가늠하는 그린 적중률에서 우즈, 로버트 앨런비(호주)에 이어 3위(70.74%)를 달리고 있다. 최근 4년 동안 그린 적중률이 10위 이내에 들지 못한 선수가 플레이어스챔피언십에서 우승한 것은 미켈슨이 유일하다.

마스터스를 치른 뒤 3개 대회를 빠진 최경주는 피로는 싹 씻었지만 실전감각 회복이 열쇠이다.